

연합뉴스, 신뢰 주는 기사 생산에 노력



지난 9월 24일 롯데호텔 에메랄드홀에서 ‘연합뉴스·뉴스Y 초청 한국광고주협회 회원간담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치 회장을 비롯한 광고주협회 회원 70여 명과 송현승 연합뉴스·뉴스Y 사장 및 경영 보도 간부진 30여 명이 참석해 소통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병로 연합뉴스 편집총국장이 ‘언론환경 변화 속의 연합뉴스’에 대한 발표를, 이래운 연합뉴스TV 보도 본부장이 ‘연합뉴스TV의 도전’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한편 광동제약 박상영 상무는 “연합뉴스는 대내외적 영향력이 큰 통신사다. 영향력이 큰 만큼 해악도 큰 매체가 될 수 있다”며 사실과 다른 뉴스가 나왔을 때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기에 이를 바로잡아줄 부서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현승 사장은 “연합뉴스가 국가기간통신사가 되고 나서 법적기구인 수용자권리위원회도 있고, 매일 기사를 심의하는 콘텐츠 평가실이 있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나갈 수 있도록 편집국을 독려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사무국에서는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 “재벌닷컴이나 CEO스코어처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는 실제로 숫자의 오류가 있거나 비교의 기준이 잘못 되었거나 또는 왜곡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연합뉴스마저 이를 인용해 기사를 쓰고 있다”고 전달하고, 이런 자료를 기사화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이에 이병로 편집총국장은 “최근 이와 관련해 편집국에서 논의를 했었다”며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사를 보도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나치게 반기업정서를 자극하거나 악용하는 자료, 의도를 갖고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양산한 자료는 걸러내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AA** 이수지 susie@kaa.or.kr